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가 과학문화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상당히 알팍한 이유에서였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나는 근사한 여성 물리학도를 상상하며 런던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영국의 대표적인 과학자로 물리학의 메카인 캐번디쉬 연구소 초대 소장을 지낸 맥스웰이 한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는 어느 모로 보나 나의 꿈을 실현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런던에 막상 도착해보니 상황은 많이 달랐다. 지도교수로 내정되었던 존 교수는 벌써 미국 대학으로의 전근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장학금 문제로 일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그 때 남편이 물리학 관련 분야로의 전과를 조심스럽게 물으며 과학사 분야를 제안하였다. 나는 고민할 시간도 없이 선뜻 그러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다. 물리학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간적인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나의 판단은 완전한 착각임이 드러났다.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고, 나는 그 기간 동안 순간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애정을 가지려 갖은 애를 썼다.

먼 길을 돌아온 인생의 교훈, 과학문화 확산의 힘으로 작용

내가 마침내 과학문화를 천업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때때로 샘물처럼 다가왔던 몇 가지 사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런던정경대학이 주최했던 칼 포퍼의 마지막 강연이다. 그 당시 20세기 석학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던 학생과 시민들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또한 무료개관으로 가난한 유학생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주던 런던 과학박물관의 18세기 과학기구 전시품들과 자연사 박물관은 나로 하여금 과학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만나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쉽지 않았다. 과학문화에 대해 논문을 쓰고자 했으나 관련된 자료도 부족하고 또 함께 논의할 동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몇 분 선생님과 선배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과학문화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2002년에 입사한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나는 순간의 선택을 현실로 재현하는 꿈을 꾸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과학문화가 제대로 인지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과학문화를 위한 시설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과학문화 확산을 담당할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양성과 과학기술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과학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매체 및 시설 같은 과학문화 인프라의 구축이다. 쉬운 길로 가려했으나 오히려 길고도 먼 길을 돌게 했던 인생의 교훈은 오늘 나로 하여금 과학문화의 확산에 전념하게 하는 힘이다. ☺

순간의 선택과 16년 뒤의 내 인생

박사학위 취득까지 13년, 과학문화는 '천직'

글_조숙경 | 한국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실장

한국에서는 아직 과학문화가 제대로 인지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과학문화를 위한 시설도 부족하다. 하지만 2002년에 입사한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나는 순간의 선택을 현실로 재현하는 꿈을 꾸고 있다.

